

ERA코리아 이영석 회장
(7 지역 대표, 서울한강RC)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비옥한 대지의 역할



이영석 회장은 동양의 '군자'처럼 생각하고 서양의 '신사' 같이 행동하는 일종의 '통합적' 인물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명예보다는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고 늘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유일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곳에 아낌없이 주는(munificent: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오는 지도자 혹은 훌륭한 인간의 덕목) 사회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공부하는 창의적 CEO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끝없는 지적 갈증을 채우려고 배움의 기회를 찾는 데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회장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숨은 리더'를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키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숨은 리더'를 발굴하는 것에 관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 로타리를 알게 되어 입회하면서 로타리를 통해서 세계에 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특히, PHS는 가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초심으로 약속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봉사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7지역 리더 역할과 10개 지역 대표들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처음에는 중압감이 있었으나, 장세호 총재님이 로타리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타리 정신을 로타리 강령과 4가지 원칙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총재님의 의지를 7지역의 로타리클럽과 10개 지역의 로타리클럽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리더'로서의 봉사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는 '숨은 리더'가 아니라 '숨고 싶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대표로서 로타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있으며, 서울한강로타리클럽 소속으로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열매, 모교(고려대학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꾸준히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부의 뜻을 저도 실천하고자 사후 전 재산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기부하고, 사후 시신을 모교인 고려대학교 병원에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봉사 활동을 하신 부분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엄청난 결심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계기는 조부님의 영향이 가장 큼니다. 조부님께서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저는 조부님이 자랑스럽고 그 뜻을 이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직후, 전쟁고아들에게 어머니가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습관화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650 지구의 'New Direction' 변화를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시는지요?

로타리에는 리더의 역할과 참모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의 역할은 리더이자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의 'New Direction'을 소속 클럽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로타리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로타리 사회적 기업'은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생긴 것은 봉사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이 시대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는 'New Direc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ERA코리아'라는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 리더로서의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ERA코리아' 뿐만 아니라 로타리 클럽을 통하여 차세대 리더 키우고 싶습니다. 'ERA코리아'라는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회와 나누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지정학연구원'을 만들어 통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리더십센터'를 만들어 시니어와 청년이 실업이 아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니어와 시니어가 상호 장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즉, 통일을 위한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타리인과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타리인은 로타리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초야의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로타리의 가치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파하여 이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리더인 지구 총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은 기차의 기관장 역할이며, 그 뜻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